

손발 안맞는 '광주시정'

윤장현 시장, 특권 포기 거품 행정 바로 잡고 시 산하 조직혁신

공무원들, 조직개편안·정기인사 등 행정 실수로 시의회와 충돌

'시민 시장'을 맞이한 민선 6기 광주시정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 이후 과도한 의전 등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공직사회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이를 업무경감 등으로 착각한 일부 시청 간부들이 중우 업무에서 실수를 연발하면서 민선 6기 시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최근 시청 인사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된 의회사무처 인사를 광주시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하고, 지난 25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행사가 광주시청 광장 앞에서 열렸는데도 광주시의회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으면서 광주시의회와 갈등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 시장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승부 =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윤 시장

은 시 행정에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내세우고 있다. 취임 초부터 과도한 의전 방식을 거부한 윤 시장은 시장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나, 돌직구 포기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미리 잡아놓기, 승용차 문 열어 주기 등 기본적인 의전부터 모두 없앴으며, 읍지연습 등 직원과 함께하는 행사에서도 직원 식당을 이용하는 등 소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취임 두달동안 소탈한 행보와 함께 조직과의 스킨십에 주력해온 윤 시장은 앞으로 민선 시대 최대 폐약 중 하나인 지적쌍기둥 거품행정을 바로잡고, 시 산하 조직을 대수술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혁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 시장은 특히 국비확보,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각종 업무의 데이터를 부풀

려 '시장 치적'으로 악용해온 관행을 모두 척결하겠다는 의지다.

당장은 타 지역이나 기존에 비해 실적이 축소된 듯 보일겠지만, 데이터 부풀리기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광주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광주시는 올 1월 2014년도 국비에 산이 3조1573억원으로 첫 3조원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허수라는 게 윤 시장의 의견이다. 2조원대 국비에 국가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 1조1477억 원을 포함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연간 3만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도 허수로 보고 있다. 이 중 2만여개가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일자리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 5

월까지 광주시가 유치한 외국기업만 70개 회사 2조230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8개사 404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긴장 풀린 간부들 행정실수 남발 = 시청 간부 공무원들 사이에 요즘 나오는 공통 언어는 "너무 편하다. 할일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민선 5기만 해도 업무 시간 외는 물론 주말 휴일을 가리지 않고 시장의 호출이 이어졌지만, 이러한 일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윤 시장이 지시한 내용을 대충 몽개는 일도 허다하다. 최근 과장급 정보 인사로 자리를 옮긴 한 간부는 "(윤)시장이 지시하거나 공약에 있는 업무만 10가지가 넘는데 단 한건도 안돼 있더라"고 푸념했다.

조직의 긴장이 풀이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업무 실수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시의회와의 조직개편안 문제다. 당초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부결되는 사태를 맞았다. 마치 노선으로 여겨졌던 지난 7월말 재통과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지만, 담당 부서는 관련법상 수월내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이를 뒤인 8월1일에 갑자기 시의회가 요구한 수정안을 다시 내놨다.

하루만 앞섰더라도 시의회와 조율을 통해 통과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정기인사에서도 의회 관련 실수가 또 터졌다. 시의회 사무처 인사는 의장과 조율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했다가 시의회와 또 충돌했다. 시청 일부 간부들이 나서 시의회에 수차례 사과한 끝에 겨우 수습했지만, 며칠 안돼 의회를 자극하는 행정 실수는 또 터졌다.

지난 2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안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의회 의원 초청은 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실질의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단순한 행정실수로 보기에 힘들다"면서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유분수"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의원은 "시청 간부들이 시장을 몰(?) 먹이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아무리 해도 가장 기본적인 의전은 해야 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박진표기자 lucky@

농어촌공 사장,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

현장경영 효율성 강화...도시 밖 사택 건축, 취직 벗어나 논란

한국농어촌공사가 다음달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자 사장이 현지로 이주해 지역 친화를 강화하고 최고 경영자의 현장경영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본사가 다음달 26일부터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 28일 이주를 완료하고 오는 10월부터 농어촌공사의 나주혁신도시 시대를 연다.

공사 측은 이상무(65) 사장이 본사 이전에 맞춰 아내 가족을 동반해 현지에 이주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나주 인근 화순군 능주면에 사장 사택 용도로 농촌형 주택을 짓고 있다.

사택은 대지 601㎡, 연건축면적 114.72㎡ 규모로 건축비는 토지구입비를 포함 3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밖에 사택을 짓는 것은 혁신도시 활성화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사측 관계자는 "신축 사택은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만큼 농촌형 주택보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공기업 사장이 직접 가족을 동반해 실질적인 이주 사례를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이순신 장군 恨 서려 아직도 풀 안자라나

충무공 유해 80일간 안치
완도 월송대 풀숲이 맨땅
영화 흥행뒤 다시 주목

눈을 감은 뒤에도 왜곡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았을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해가 80여일 안치된 완도 고금도 월송대에 풀이 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도군은 26일 "정유재란 당시 마지막 수군 본영이었던 고금도의 이순신 장군 유적지인 충무사 내 월송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명량' 돌풍 이후 월송대를 찾은 관광객들은 '유해 안치 장소에 풀이 자라지 않는다'는 현지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란다는 것이다.

해설사 임천규(40)씨는 "월송대 자리에는 아직도 풀이 자라지 않아 맨땅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장군의 기가 서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대로 고금도를 지켜 온 주민들도 "풀이 제대로 자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변과 달리 가로, 세로 1m 남짓의 유해 안치 장소는 황토색을 띠는 맨땅이다. 토질은 굽은 모래 등 일반 야산의 흙이나 다르겠지만 '풀이 자라지 않는



정유재란 당시 마지막 수군 본영이었던 완도 고금도의 이순신 장군 유적지(충무사) 내 월송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이순신 장군의 유해를 80여일 안치했던 자리로,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맨땅이나 다름없다. /연합뉴스

이유를 알 수 없어 미스터리"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월송대는 충무사 건너편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이 충무공이 밤이면 찾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곳으로 유명하다.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달이 여섯 시

간 정도 이곳을 비추었다고 해서 월송대라 불리고 있다.

한편 고금도에는 충무공 신위를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충무사(국가사적 114호)와 월송대 등 유적이 있다. 충무사에는 전라남도 문화재 163호

로 지정된 작은 수혈 형식의 우수영 전진도첩 필사본이 있다. 전진도첩은 해전 진법으로 이충무공이 직접 만들고 실전에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전남, 출산율 전국 1위 광주는 14위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3년 출산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를 기준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51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는 1.170명으로 전년보다 0.107명이나 줄어 전국(광역시도 중 14위)

떨어지 수준을 보였다.

전남에서도 해남군이 2.349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영암군(2.150명), 3위 강진군(1.988명), 8위 광양시(1.839명), 10위 함평군(1.786명) 등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2위는 충남(1.442명), 3위는 세종시(1.435명), 4위는 제주(1.427명), 5위는 울산(1.391명)이었다.

출산율 최저는 서울(0.968명)이 기록했으며 16위 부산(1.049명), 15위 대구(1.127명)가 뒤를 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정밀 미세 레이저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부작용: 수술초기 이안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프, 페이스, 웨너트 복합치료
② 에드를레이저: 스무스링, 아이클, 브이빔, 프락셀
③ 세오레이저: 쉐닝맥스, 디오오유즈
④ 피부 미백: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⑤ 주름·출혈: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랙토라, 프랙토라, 프랙토라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종
⑦ 비인: 네오모도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비야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